

조선대-양동시장 손잡고

이야기 꽃피는 시장 만들기



수다 소통 '通'했다

전남대 '교수들의 수다' 관심

교육력 소통분야 우수사례 소개

전남대 교수들의 수다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대의 교수 대담 프로그램 '교수들의 수다(약칭 '교수다')가 대학사회의 대표적인 소통·토론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대는 최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13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교수다'를 교육력 소통 분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교수다'는 교수들의 교육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수사회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물론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남대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교수초청 대담 프로그램이다.

'교수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말해주듯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활용,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간편한 식사를 하면서 초청 교수 1명과 사회자가 미리 정해진 주제를 놓고 대담을 한 뒤 청중석의 교수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2년 2학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월 1회, 학기 당 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전남대 전체 교수의 30% 가량이 토론에 참여해 학과 개혁, 직업개발과 취업지도, 양성평등대학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허영동 전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교수다'를 통해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업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LINC사업단 '상가발전 추진위' 결성 문화시장 프로젝트

이정표·벽화로 이미지 변신...스토리 발굴해 열린시장 육성

조선대학교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100년 역사의 양동시장 부흥에 앞장선다.

조선대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단(단장 조금배)이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광주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광주 양동시장 부흥을 위해 나섰다.

LINC사업단은 (주)양동시장, (주)양동복개상가, KT&G 전남본부, (주)인터큐브와 함께 '양동지역 전통시장 상가발전 추진위원회'를 결성, 양동시장을 인문사회와 공학적인 융복합 소재를 활용해 IT에 기반한 새로운 호남의 대표 문화시장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업단은 '전통시장에 스토리를 입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수와 학생,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스토리텔링 공간을 형성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지난달 양동시장 상가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6일 양동지역 전통시장 상가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사업단은 학생들의 재능 기

부와 (주)인포큐브와 한국예술인협동조합, 문화신문미디어 등 문화예술 전공자와 기획 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권 전통시장으로서 경쟁력 있는 시장, 스토리와 문화가 있는 즐거운 전통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양동시장 1백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생생한 스토리를 발굴해 전통시장의 정을 나누면서 모바일웹, QR코드, 웹진, 월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젊은이들이 찾는 활기차고 열린 시장으로 육성한다.

양동시장 활성화는 미소 담은 양동시장, 꿈을 파는 예술점빵, 이야기 입은 큰시장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미소 담은 양동시장'을 위해 디자인 이정표를 설치하고 벽화를 입혀 산뜻한 이미지로 면모를 일신한다. 언제나 원하는 문화와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예술점빵'을 운영한다. 또 마케팅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가 문화와 스토리, 시장의 특성을 미디어와 공학적 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전통시장 패러다임을 구현한다.

오는 13일에는 양동 설맞이 전시&공연 '북·적·북·적 한 마당'이 열리며, 23일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세미나를 열어 양동시장의 미래를 위한 담론을 창출할 계획이다.

조금배 조선대 LINC사업단장(전기공학부)은 "전문가와 시민, 상인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기념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최근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중인 스리랑카 국민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67주년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이 주최하

는 행사로 서울과 안산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실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스리랑카와 대한민국 국기가 잇따라 제창되며, 스리랑카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축하 메시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축전이 각각 대독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한의학과 5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이 5년 연속 한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을 기록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학장 나장수)은 지난달 치러진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한의학과 재학생 3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동신대는 지난해 치러진 69회 한의사 국사에서

재학생 49명이 모두 합격했으며, 2013년 제68회 한의사 국사에서는 재학생 50명 전원이, 2012년 제67회 한의사 국사에서는 재학생 51명 전원이 합격했고, 2011년 제66회 한의사 국사에도 재학생 47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좋은학과 만들기' 발표회

2015학년도 교육과정 등의 운영계획을 밝혀 과별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연계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동강대학교가 오는 2017년까지 교육 및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좋은 학과 만들기'에 나섰다. 동강대는 최근 대학 학술정보원 1층 GCC에서 이민속 이사장, 김동욱 총장, 유아교육과를 비롯한 예체능계열 5개 학과장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단기 학과 운영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과별로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불백(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착한 소장수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출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함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함세트 (탕+무침+구이)	50,000원
백함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